

## 보건의료계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김혜숙<sup>1</sup>, 박재성<sup>2</sup>, 조은주<sup>3</sup>

<sup>1</sup>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sup>2</sup>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sup>3</sup>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 The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of Health Care Fields College Students

Hye-Sook Kim<sup>1</sup>, Jae-Sung Park<sup>2</sup>, Eun-Joo Jo<sup>3</sup>

*<sup>1</sup>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Dongseo University,*

*<sup>2</sup>Dept. of Health Care Administration, Kosin University,*

*<sup>3</sup>Dept. of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Kosin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and compared the selection conditions of spouses and the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by sex. Moreover,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number of child the study subjects want to have in their marriage and what factors were important for whether they have no or one child or more than two children. The study subjects were college students who were belong to 6 health care related departments selected randomly from all health care related departments in one metropolitan area. In the selection conditions as their spouses, they ranked 'love', 'personality' and 'wealthiness' as important factors in order.

Male ranked females' employment as 10th but female ranked it 5th. In conclusion, there were concordances and dis-concordances on the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 birth by sex. Understanding these factors caused by gender roles in our society could contribute to making new policies for promoting marriage rate in younger age and overcoming the problems of low birth rates by giving more specific data to policy makers for increasing child birth rate.

---

**Key Words : Marriage, Perceptions of Marriage, Perceptions of Child Birth, Policies for Child Birth, Child Birth Rat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0년 11월 11일 현재 4,858만명으로 2005년 4,728만 명에 비해 130만 명 증가하였으나 30대 연령의 미혼율은 29.2%로 2005년 21.6%보다 7.6%포인트 늘었고 2000년의 13.4%와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1]. 또한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2018년 49,340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30년 48,635천명, 2050년 42,343천명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1]. 또한 2010년도 여성인구는 24,174천명으로 총인구의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은 4.53명에서 2010년에는 1.22명으로 떨어진 상태이며, 향후 2030년에는 1.28명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2005년 438천명, 2030년 348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가임여성의 인구가 2007년 1,323천명에서 2030년에는 931천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합계출산율 또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1]. 한 나라의 인구규모나 구조는 국가의 경쟁력 및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삶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출산력의 저하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 또한, 출산력의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를 동반하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1.0%에서 저출산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6년에는 20.8%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특히 201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2만명으로 2005년 437만명보다 106만명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11.3%(11.0%)를

차지하게 되어 모든 시·도가 고령화사회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소년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증가세에 있으며 노령화지수는 69.7로, 2005년(48.6)보다 21.1포인트 늘어났다[1]. 황지영의 연구[4]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적정인구의 규모는 4,600만~5,100만이며 이를 위한 적정출산율은 1.8명에서 2.3명으로 제한한 바가 있다.

결혼 및 출산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이며 출산율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과 결합시켜 이해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접근일 수 있다. 결혼 및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개인의 가치관을 통해서 표출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원인은 결혼과 출산이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책적인 요인은 보육비 지원, 세금혜택과 같은 정부지원들에 대한 생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대학생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2]. 신호영의 연구[2]에서 남자의 32.3%, 여자의 17.6%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해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5]의 남 23.4%, 여 16.9%의 응답과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맞벌이 등의 형태로 경제적인 책임은 나누어지고 있으나, 가사노동 같은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관이 바뀌어 지지 않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결혼관과 마찬가지로 자녀관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5]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1990년 90.3%였으나, 2000년에는 58.1%, 2003년에는 54.4%, 2005년에는 23.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24.8%로 2005년에 비해 1.4% 증가하였으나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비중은 9.7%였다. 이는 자녀출산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혼여성들이 자녀양육보다는 자기성취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부모됨을 하나의 선택으로 보는 가치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신효영의 연구[2]에서는 결혼은 필요하며 자녀도 필요하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의 가중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 목적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학생들의 전체적인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이러한 인식이 성별 특성에 따른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심도있게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예비부모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장래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해 예측해 보고, 이로 인한 문제점과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의 출산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규명하여 대학생들의 장래 결혼과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생각을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배우자의 선택 조건을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자녀 및 출산에 대해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 및 범위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중 보건계열학과가 있는 6개 대학중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설문지 400부를 배부하여 388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고 회수율은 97%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조사자의 직접 배포와 응답자의 자기기재 방식 후 회수하는 절차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선행연구 논문 조윤정[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종교, 주 성장지역, 가정의 평균소득, 부모 직업, 부모 학력, 형제관계, 부모 성향,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문항 12문항, 결혼(결혼 유무, 결혼 적령기, 결혼의사, 결혼 나이,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 결혼 생각이유)에 대한 인식 8문항, 자녀 출산(자녀관, 이상적인 자녀 수, 원하는 자녀 수, 자녀수를 결정하는 요인, 자녀양육의 책임자, 결혼 후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인식 5문항, 정부정책(저 출산 문제의 해결주체, 출산정책에 대한 생각,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출산 저하의 원인)에 대한 인식 6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분석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결혼의식, 자녀 출산 의식, 저출산 현상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hi^2$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정식 질문은 리커트 척도법(Likert scale)으로 5점 척도(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를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1.4세 였으며 표준편차는 2.1였다. 또한 응답자의 최소 나이는 18세였고 최고 나이는 38세였다. 보건관련학과의 특성상 여성의 비율이 85%로 많았지만 나이, 종교,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는 특이한 분포가 없었다<표 1>.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빈도(%)
성	남	57(15.0)
	여	331(85.0)
나이	20세미만	51(13.0)
	20-23미만	253(65.0)
	23-26미만	67(17.0)
	26이상	17( 5.0)
종교	기독교	122(31.0)
	천주교	22( 6.0)
	불교	76(20.0)
	무교	168(43.0)
거주지역	대도시	212(55.0)
	중소도시	135(35.0)
	읍면지역	41(10.0)
	외동딸	27( 7.0)
형제관계	외동아들	8( 2.0)
	그외	353(91.0)
월평균가구 소득 <sup>a</sup>	100미만	24( 6.0)
	100-200미만	67(17.0)
	200-300미만	130(34.0)
	300-400미만	90(23.0)
	400-500미만	53(14.0)
	500이상	24( 6.0)
	합계	388(100.0)

a: 단위-백만원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결혼 의사의 차이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결혼할 의사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결혼할 의사와 성( $\chi^2=2.70$ ,  $p = .100$ ), 나이( $\chi^2=5.05$ ,  $p = .17$ ), 종교( $\chi^2=2.06$ ,  $p = .56$ ), 거주 지역( $\chi^2=.77$ ,  $p = .68$ ), 형제관계( $\chi^2=2.85$ ,  $p = .24$ ),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 $\chi^2=9.59$ ,  $p = .08$ )이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결혼할 의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 2. 결혼에 대한 생각과 배우자의 선택의 조건

결혼할 배우자에 대한 선택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었으며, 두 번째 요소는 성격,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력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표 2>. 결혼 의사에 따라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성별 선택조건의 관련성은 <표 3>과 같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남녀에 따라 서로 배우자의 조건에 대하여 유사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결혼할 배우자 선택의 순위

항목	빈도	순위
사랑	127	1
성격	122	2
경제력	55	3
종교	35	4
건강	25	5
외모등신체조건	13	6
가정환경	9	7
학벌	2	8

<표 3> 결혼의사에 따른 성과 배우자 선택조건의 교차분석

단위 : 빈도(%)

결혼 의사	성	배우자 선택 조건						통계량
		사랑	성격	경제력	종교	건강	외모	
있음	남	21(41.0)	16(31.0)	2(4.0)	7(14.0)	2(4.0)	3(6.0)	$\chi^2=8.50^a$ , p = .16
	여	94(36.0)	81(30.0)	38(14.0)	22(8.0)	18(7.0)	13(5.0)	
없음	남	1(17.0)	2(33.0)	1(17.0)	0(0.0)	0(0.0)	2(33.0)	$\chi^2=7.22^a$ , p = .31
	여	11(17.0)	26(40.0)	14(22.0)	6(9.0)	5(8.0)	3(4.0)	

a: Fisher's exact test

### 3. 결혼해야 할 이유

전체 응답자 중 결혼 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는 31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2%로 높은 수준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파악했을 때, 남자의 경우 인생의 동반자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하였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을 선택한 반면, 여성의 경우 첫 번째 이유는 남자와 같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자녀를 갖고 싶어서'에 응답하였다<표 4>.

각 순위 항목에 대한 성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p <.01)과 '경제적 안정'(p <.05) '성적욕구 충족'(p <.001) 그리고 '남들도 하나까'(p <.05)의 항목에서 남녀의

차이가 파악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과 '성적욕구 충족'에서는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 보다 더 많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하였고, '경제적 안정'과 '남들도 하나까'의 경우는 여성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결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이익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각 성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역할 모형과 유사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결혼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의 경우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누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결혼할 이유에 대한 순위

항목	전체(n=317)		남(n=51)		여(n=266)	
	평균(S.E)	순위	평균(S.E)	순위	평균(S.E)	순위
인생의 동반자를 위해서	4.34( .70)	1	4.53( .70)	1	4.31( .70)	1
자녀를 갖고 싶어서	3.89( .83)	2	4.06( .86)	3	3.86( .82)	2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3.78( .77)	3	4.18( .74)	2	3.71( .76)	3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3.68( .86)	4	3.55(1.17)	4	3.70( .79)	4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3.03( .88)	5	3.25(1.02)	5	2.99( .85)	5
남들도 대부분 하나까	2.85(1.08)	6	2.43(1.12)	7	2.94(1.06)	6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2.64(1.09)	7	2.67(1.32)	6	2.64(1.04)	7

<표 5> 성과 결혼할 생각이 있는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단위 : 빈도(%)

항목	성		항목	성		
	남	여		남	여	
인생의 동반자	3	47(92.0)	240(90.0)	3	24(47.0)	63(24.0)
	2	3(6.0)	21(8.0)	2	14(27.5)	142(53.0)
	1	1(2.0)	5(2.0)	1	13(25.5)	61(23.0)
	합계	51(100.0)	266(100.0)	합계	51(100.0)	266(100.0)
$\chi^2=.24^a$ , p = .910			$\chi^2=14.49$ , p = .000			
자녀를 갖고 싶음	3	42(82.0)	193(73.0)	3	11(21.6)	93(35.0)
	2	5(10.0)	56(21.0)	2	11(21.6)	77(29.0)
	1	4(8.0)	17(6.0)	1	29(56.8)	96(36.0)
	합계	51(100.0)	266(100.0)	합계	51(100.0)	266(100.0)
$\chi^2=3.50^a$ , p = .161			$\chi^2=7.86^a$ , p = .021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	3	45(88.0)	174(65.0)	3	16(31.0)	60(23.0)
	2	4(8.0)	78(29.0)	2	12(24.0)	81(30.0)
	1	2(4.0)	14(5.0)	1	23(45.0)	125(47.0)
	합계	51(100.0)	266(100.0)	합계	51(100.0)	266(100.0)
$\chi^2=11.01^a$ , p = .0018			$\chi^2=2.12^a$ , p = .354			
경제적 안정	3	29(56.9)	172(65.0)			
	2	12(23.5)	78(29.0)			
	1	10(19.6)	16(6.0)			
	합계	51(100.0)	266(100.0)			
$\chi^2=10.56$ , p = .011						

a: Fisher's exact test

3: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2: 그저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

#### 4.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유

전체 응답자 중 결혼 할 생각이 없는 응답자는 7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8%의 수준이었고, 이중 여성의 경우가 92%로 남성의 8%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었다. 여성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유에서 '자유구속'이 제일 큰 이유였으며, 두 번째 이유는 자아실현 및 자기 계발의 방해, 그리고 세 번째가 의무와 역할의 분담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첫 번째가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가 자유구속 그리고 세 번째가 의무와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응답하였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유에서는 성별에 따른 이유의 순위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표 6>.

성에 따라 결혼할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한 교

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중요 순위의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결혼과 생활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이유 항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경제적 이유를 결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였다<표 7>.

#### 5. 응답자들의 자녀에 대한 생각

응답자들의 자녀관에서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한 명을 원할 경우' 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원할 경우로 나누어 각각에 있어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전자의 경우가 전체 응답자(n=388)중 59명으로 응답하여 15% 수준이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329명으로 응답하여 85%의 수준이었다.

무자녀나 한명의 자녀를 원하는 경우 여성들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움’과 ‘출산 양육에 의한 사회활동 지장’을 똑 같이 두 번째 이유로 응답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첫 번째 이유로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와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동일한 순위로 응답하였고, 세 번째 이유는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비록 남성의 응답이 적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성에 따른 순위 변동이 심하였다<표 8>.

<표 6>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유에 대한 순위

항 목	전체(n=71)		남(n=6)		여(n=65)	
	평균(SE)	순위	평균(SE)	순위	평균(SE)	순위
자유 구속	3.61(1.01)	1	3.17(1.47)	2	3.65( .96)	1
자아실현 및 계발 방해	3.51( .98)	2	2.67(1.21)	4	3.58( .93)	2
의무와 역할이 부담	3.37(1.07)	3	2.83( .98)	3	3.42(1.07)	3
잘 해낼 자신이 없어서	2.97(1.11)	4	2.67(1.03)	4	3.00(1.12)	4
사회생활에 장애	2.86( .96)	5	2.17( .75)	6	2.92( .96)	5
경제적 이유(결혼·생활비용 등)	2.68(1.09)	6	4.00( .89)	1	2.55(1.03)	6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	2.11(1.06)	7	1.67(1.03)	7	2.15(1.06)	7

<표 7> 성과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항목	성		항목	성	
	남	여		남	여
	단위 : 빈도(%)				
자유 구속	3	45(69.0)	사회생활의 장애	3	21(32.0)
	2	9(14.0)		2	21(32.0)
	1	11(17.0)		1	23(36.0)
	합계	65(100.0)		합계	65(100.0)
$\chi^2 = 1.139, p = .442$			$\chi^2 = 3.35, p = .233$		
자아실현 및 계발 방해	3	40(62.0)	경제적 이유	3	12(18.0)
	2	14(21.0)		2	26(40.0)
	1	11(17.0)		1	27(42.0)
	합계	65(100.0)		합계	65(100.0)
$\chi^2 = 3.85^a, p = .114$			$\chi^2 = 8.22^a, p = .016$		
의무와 역할이 부담	3	35(54.0)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	3	7(11.0)
	2	13(20.0)		2	18(28.0)
	1	17(26.0)		1	40(62.0)
	합계	65(100.0)		합계	65(100.0)
$\chi^2 = 1.58^a, p = .460$			$\chi^2 = .73^a, p = 1.000$		
잘 해낼 자신이 없어	3	25(38.0)			
	2	15(24.0)			
	1	25(38.0)			
	합계	65(100.0)			
$\chi^2 = 2.49^a, p = .361$					

a: Fisher's exact test

3: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2: 그저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

<표 9>와 같이 성에 따른 무자녀 또는 한명의 자녀를 원하는 이유의 관련성을 분석했을 때 여성의 경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어려움(p<.05), 출산으로 인한 사회생활 지장(p<.05) 그리고 가사와 양육의 공평한 분담의 불가(p<.05)의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 부부만의 생활(p<.05)과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p <.05)이라는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높은 비율의 응답이 있었다. 이 결과는 가정 내의 역할모델에서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싶은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한 명을 원하는 이유에 대한 순위

항 목	전체(n=59)		남(n=4)		여(n=55)	
	평균(SE)	순위	평균(SE)	순위	평균(SE)	순위
육체적, 정신적 부담	3.75(1.12)	1	3.50(1.00)	3	3.76(1.14)	1
직장-가정생활 양립이 어려움	3.64(1.13)	2	2.25(1.26)	5	3.75(1.06)	2
출산-양육에 의한 사회활동 지장	3.64(1.13)	2	2.25( .96)	5	3.75(1.08)	2
가사-양육의 공평 분담 불가	3.12(1.27)	4	1.50( .58)	7	3.24(1.23)	4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	3.08(1.13)	5	4.25( .50)	1	3.00(1.12)	5
필요성을 못 느껴	2.69(1.28)	6	4.25( .50)	1	2.58(1.24)	6
본인이 아이를 싫어함	2.24(1.21)	7	3.50(1.29)	3	2.15(1.16)	7

<표 9> 성과 무자녀 또는 한명의 자녀를 원하는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항목		성		항목		성	
		남	여			남	여
육체적 정신적 부담	3	3(75.0)	35(64.0)	부부만의 생활을 위해	3	4(100.0)	17(31.0)
	2	0(0.0)	13(23.0)		2	0(0.0)	20(36.0)
	1	1(25.0)	7(13.0)		1	0(0.0)	18(33.0)
	합계	4(100.0)	55(100.0)		합계	4(100.0)	55(100.0)
		$\chi^2= 1.43^a$ , p = .436				$\chi^2= 7.77^a$ , p = .031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움	3	1(25.0)	36(65.0)	필요성을 못 느껴	3	4(100.0)	16(29.0)
	2	0(0.0)	12(22.0)		2	0(0.0)	10(18.0)
	1	3(75.0)	7(13.0)		1	0(0.0)	29(53.0)
	합계	4(1.00)	55(1.00)		합계	4(100.0)	55(100.0)
		$\chi^2=10.38^a$ , p = .023				$\chi^2= 8.36^a$ , p = .024	
출산으로 인한 사회생활 지장	3	0(0.0)	37(67.0)	본인이 아이를 싫어함	3	2(.50)	10(18.0)
	2	2(50.0)	10(18.0)		2	1(.25)	8(15.0)
	1	2(50.0)	8(15.0)		1	1(.25)	37(67.0)
	합계	4(100.0)	55(100.0)		합계	4(1.00)	5(100.0)
		$\chi^2= 7.31^a$ , p = .016				$\chi^2= 3.16^a$ , p = .124	
가사-양육 공평 분담 불가	3	0(0.0)	24(43.6)				
	2	0(0.0)	15(27.3)				
	1	4(100.0)	16(29.1)				
	합계	4(100.0)	55(100.0)				
		$\chi^2= 8.37^a$ , p = .014					

a: Fisher's exact test

3: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2: 그저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



두 명이상의 자녀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두 명 이상 자녀를 두고자 하는 이유에서 남성과 여성의 우선순위가 비슷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외동은 외로울까봐, 두 번째 는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때문,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성에 따라 각 순위에 차이를 보인 항목은 노후의 경제적 부양과 사회적 책임 항목이었다<표 10>.

<표 10> 두 명 이상 자녀를 둘 이유에 대한 순위

항목	전체(n=329)		남(n=53)		여(n=276)	
	평균(SE)	순위	평균(SE)	순위	평균(SE)	순위
외동은 외로울까봐	4.06( .73)	1	4.28( .77)	1	4.01( .71)	1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3.74( .80)	2	3.79( .86)	2	3.73( .78)	2
많을수록 좋기 때문	3.64( .91)	3	3.58(1.10)	3	3.66( .87)	3
노후에 외로울까봐	3.11(1.00)	4	2.81(1.13)	4	3.17( .96)	4
가계 계승을 위해서	2.70( .89)	5	2.62(1.04)	5	2.71( .86)	5
노후의 경제적 부양	2.62( .94)	6	2.47(1.10)	7	2.64( .91)	6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2.53( .95)	7	2.51(1.09)	6	2.53( .92)	7

<표 11> 성과 다 자녀를 둘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항목	성		항목	성			
	남	여		남	여		
				단위 : 빈도(%)			
외동은 외로울까봐	3	48(90.0)	236(86.0)	가계계승을 위해	3	12(23.0)	48(17.0)
	2	4(8.0)	26(9.0)		2	16(30.0)	121(44.0)
	1	1(2.0)	14(5.0)		1	25(47.0)	107(39.0)
	합계	53(100.0)	276(100.0)		합계	53(100.0)	276(100.0)
		$\chi^2= 1.29^a, p = .665$				$\chi^2= 3.44^a, p = .165$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3	36(68.0)	187(68.0)	노후의 경제적 부양	3	7(13.0)	45(16.3)
	2	14(26.0)	69(25.0)		2	20(38.0)	116(42.0)
	1	3(6.0)	20(7.0)		1	26(49.0)	115(41.7)
	합계	53(100.0)	276(100.0)		합계	53(1.00)	276(100.0)
		$\chi^2= .20^a, p = .969$				$\chi^2= 1.04^a, p = .629$	
많을수록 좋기 때문	3	31(58.5)	169(61.0)	사회적 책임 때문	3	11(21.0)	39(14.0)
	2	14(26.4)	79(29.0)		2	15(28.0)	106(38.0)
	1	8(15.1)	28(10.0)		1	27(51.0)	131(47.0)
	합계	53(100.0)	276(100.0)		합계	53(100.0)	276(100.0)
		$\chi^2= 1.13^a, p = .539$				$\chi^2= 2.63^a, p = .277$	
노후에 외로울까봐	3	16(30.0)	115(41.7)				
	2	15(28.0)	96(34.8)				
	1	22(42.0)	65(23.5)				
	합계	53(100.0)	276(100.0)				
		$\chi^2= 7.45^a, p = .032$					

a: Fisher's exact test

3: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2: 그저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교차분석에서 유의한 항목은 성과 '노후에 외로울까봐'라는 항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고(p <.05),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표 11>.

## 6. 출산율에 대한 생각

낮은 출산율에 대한 이유에서 남녀 모두 교육비의 증가, 양육비의 증가, 그리고 생활비의 증가를 차례대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응답하였고 다른 항목의 순위도 비슷하였지만,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

한 출산율의 증가에서는 여성의 경우 다섯 번째 순위이었지만, 남성의 경우 열 번째 순위로 응답하여 순위의 차이가 현격하였다 <표 12>. 성에 따른 출산율 저하의 원인 항목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았지만 취업여성의 증가 항목에서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1). 남성보다도 여성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의식의 확산에서는 유의한 수준에 접근하였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소 높은 비율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많이 응답하였다 <표 13>.

<표 12> 출산율 저하 원인에 대한 순위

항목	전체(n=388)		남(n=57)		여(n=331)	
	평균(SE)	순위	평균(SE)	순위	평균(SE)	순위
교육비용의 증가	4.41(.73)	1	4.37(.77)	1	4.42(.73)	1
양육비용의 증가	4.38(.72)	2	4.32(.78)	2	4.39(.71)	2
생활비용의 증가	4.26(.74)	3	4.30(.73)	3	4.26(.75)	3
경기불황과 실업률 증가	4.05(.74)	4	4.23(.73)	4	4.02(.73)	4
주택 구입비용의 증가	3.86(.89)	5	3.93(.98)	5	3.84(.88)	6
취업여성의 증가	3.81(.80)	6	3.49(.97)	10	3.86(.76)	5
개인적 성취 중시하는 의식	3.78(.85)	7	3.77(.93)	6	3.78(.84)	7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등	3.76(.86)	8	3.67(.83)	8	3.78(.87)	8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	3.71(.87)	9	3.60(1.10)	9	3.73(.82)	9
초혼연령 상승 및 이혼 증가	3.69(.78)	10	3.77(.80)	6	3.67(.78)	10
남아선호사상의 저하	2.88(.97)	11	2.67(1.04)	11	2.92(.96)	11

<표 13> 성과 출산율 저하 원인에 대한 교차분석

항목	성		항목	성		
	남	여		남	여	
	3	33(58.0)		250(76.0)	3	42(74.0)
2	15(26.0)	63(19.0)	2	8(14.0)	89(27.0)	
취업여성의 증가	1	9(16.0)	18(5.0)	1	7(12.0)	21(6.0)
	합계	57(100.0)	331(100.0)	합계	57(100.0)	331(100.0)
$\chi^2 = 10.84, p = .004$			$\chi^2 = 5.93, p = .052$			

3: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2: 그저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

### 7. 정부정책에 대한 생각

정부정책에 대한 생각과 관련하여 자녀양육의 책임에 대하여 남성은 82.5%, 여성은 81.3%로 남녀 모두 부부공동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주체와 관련하여 남성은 본인의 의지(49.1%)가 해결주체로 응답하였고, 여성은 정부(54.1%)가 해결주체로 응답하였다. 결혼 후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하여 남성은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만 두어야 된다가 35.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

우는 계속한다가 36.6%로 응답하여 남·녀간 순위의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출산 또는 자녀수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정책에 관하여는 남녀 모두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남성은 63.2%, 여성은 57.5%로 동일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시행중인 출산정책에 관하여 남성은 효과적이다 61.4%, 여성은 63.7%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표 14>.

<표 14> 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교차분석 빈도(%)

항목	성		항목	성			
	남	여		남	여		
자녀 양육의 책임 <sup>1)</sup>	1	2(3.5)	21(6.0)	저출산 문제의 해결주체 <sup>2)</sup>	1	28(49.1)	118(36.0)
	2	3(5.3)	15(5.0)		2	0(0.0)	12(4.0)
	3	47(82.4)	269(81.0)		3	26(45.6)	179(54.0)
	4	4(7.0)	24(7.0)		4	2(3.5)	16(5.0)
	5	1(1.8)	2(1.0)		5	1(1.8)	6(2.0)
	합계	57(100.0)	331(100.0)		합계	57(100.0)	331(100.0)
$\chi^2 = 1.56^a, p = .816$			$\chi^2 = 5.26^a, p = .262$				
결혼 후 여성직장 생활에 대한 생각 <sup>3)</sup>	1	12(21.0)	121(36.0)	출산 또는 자녀수에 대한 사고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부정책 <sup>4)</sup>	1	3(5.3)	16(5.0)
	2	20(35.0)	78(24.0)		2	3(5.3)	14(4.0)
	3	0(0.0)	2(1.0)		3	6(10.5)	84(25.0)
	4	3(5.0)	6(2.0)		4	36(63.2)	191(58.0)
	5	18(32.0)	119(35.0)		5	5(8.8)	8(2.0)
	6	4(7.0)	5(2.0)		6	3(5.3)	13(4.0)
합계	57(100.0)	331(100.0)	합계		57(100.0)	331(100.0)	
$\chi^2 = 15.43^a, p = .009$			$\chi^2 = 11.10^a, p = .085$				
정부가 시행중인 출산정책 <sup>5)</sup>	1	5(9.0)	25(7.0)				
	2	17(30.0)	95(29.0)				
	3	35(61.0)	211(64.0)				
	합계	57(100.0)	331(100.0)				
$\chi^2 = .16^a, p = .925$							

1) 자녀양육의 책임 - 1: 어머니, 2: 아버지, 3: 부부공동, 4: 가족구성원 중 어느 누구나 가능한사람, 5: 국가

2) 저출산 문제의 해결주체 - 1:본인의 의지, 2: 기업, 3: 정부, 4: 사회단체, 5:기타

3) 결혼 후 여성 직장생활에 대한 생각 - 1: 계속한다. 2: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만둔다, 3: 무조건 그만둔다. 4: 임신하면 그만둔다, 5: 육아 후 다시 직장생활을 계속한다, 6: 기타

4) 출산 또는 자녀수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부정책 1: 출산 축하금 지급, 2: 불임치료 및 기형아 검진비 등 지원, 3: 산전 후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 4: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5: 보육시설확충, 6: 아파트 우선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 7: 기타

5) 정부가 시행중인 출산정책 - 1: 효과적이지 않다, 2: 보통이다, 3: 효과적이다

a: Fisher's exact test

####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부모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장래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해 예측해 보고, 이로 인한 문제점과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의 출산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결혼과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연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1.4세였으며, 응답자의 최소 나이는 18세였고 최고 나이는 38세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 나이, 종교, 거주 지역, 형제관계,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결혼할 의사에 대한 교차분석은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어떤 특정 집단이 결혼에 대한 의사가 다른 집단에 비해 특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에 대한 의도가 사회 인구학적 요소 보다는 개개인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응답자의 결혼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중요도에서 김한곤의 연구[7]는 결혼 배우자의 경제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였고, 고경애의 연구[8]에서는 성격과 경제력을 차례대로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여자의 경우 사랑, 두 번째 요소는 성격,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력이라고 응답하였고, 남자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사랑, 성격, 그리고 종교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김한곤의 연구[7]와 고경애의 연구[8]는 우선순위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비교적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다른 점은 이 연구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한 것이다. 결혼의 조건으로 사랑 또는 애정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 연구들은 주로 1960년대

이전의 연구들에서 선택의 조건에는 애정, 성격, 건강과 같은 개인적 속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일치하였다. 배우자의 조건을 성에 따라 분류한 최미정의 연구[9] 결과에서는 남자는 여자의 용모를, 여자는 남자의 학벌과 생활력 등 현실적 조건을 중시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조운정의 연구[6]에서도 경제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결혼할 의사 여부에 따라 성에 따른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선호도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결혼할 의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에 따른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생각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의미하며, 결혼을 할 생각은 없지만 결혼을 한다고 가정한다고 생각할 때 결혼할 의사가 있는 집단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로 파악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남녀 모두 인생의 동반자를 원하기 때문으로 응답하였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남자의 경우 결혼이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선택했지만 여성의 경우 자녀를 갖고 싶다는 이유였다. 조운정과 고경애의 연구[6][8]에서도 인생의 동반자가 가장 중요한 이유를 파악되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해야 하는 이유와 성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의 경우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성적 욕구를 충족에 높은 응답을 하였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과 남들도 하는 결혼이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 결과는 최현민과 송유미의 연구[10][11]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애정(사랑)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고 파악한 것과 두 번째 요인으로는 자녀출산, 가정의 창조 및 가계계승으로 파악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응답자들이 결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이익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남성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경제적 필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그런 경향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 각 성에 따라 사회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 모형과 기대를 각 성별이 적절히 수용하는 경향을 파악한 것이다. 이상덕의 연구[12]에서는 대학생의 결혼관과 자녀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는데 사회적 일반성을 잘 따르는 것이 전통적인 결혼의 가치관과 연결될 수 있다면 유사한 결과로 해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결혼 할 생각이 없는 경우는 18% 정도였지만, 이 중 여성이 92%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아주 높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유에서 본인의 자유가 구속된다는 이유를 제일 큰 이유로 생각했으며, 두 번째 이유는 자아실현 및 자기 계발의 방해, 그리고 세 번째가 의무와 역할의 분담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남자는 첫 번째가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가 자유구속 그리고 세 번째가 의무와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응답하였다. 김보경의 연구[13]에서도 결혼이 여성의 직장생활의 방해가 되며, 자아성취의 어려움을 주므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시기는 늦출 것이라고 응답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조윤정과, 최미정의 연구[6][9]에서도 여성의 직장생활이 여성의 결혼기피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성에 따라 결혼할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요 순위에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결혼과 생활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이유 항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남성은 경제적 이유를 결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에게 자녀관에 대한 질문 결과 전체 중

15%가 무자녀 또는 한 명의 자녀를 원하였다. 그 이유는 출산이 여성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의 어려움 때문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부부만의 생활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다수가 응답하였다. 이상덕과 김보경의 연구[12][13]에서도 출산으로 인한 사회생활에 지장이 무자녀 또는 한명의 자녀를 가지길 원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최현민의 연구[10]에서도 1명을 원하는 경우는 약 12%,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6%로 합계로 비교하면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김보경의 연구[13]에서 한 가정의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으나 실제로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약 52%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었다. 조윤정의 연구[6]에서도 실제로 본인이 낳을 자녀수는 2명 이상이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으나,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육체적, 정신적 부담, 직장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가사 및 양육의 불공평 분담의 이유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많은 자녀를 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인 출산과 양육의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최현민의 연구[10]에서 셋째 아이 출산에 대한 출산 수당을 제공할 경우 아이를 더 가지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약 59%로 조사된 것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다면 다산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보경의 연구[13]에서도 출산 또는 자녀수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육아 및 보육비의 정부 지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85%였다. 남녀 모두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로는 외동은 외롭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에 따른 두 명이상의 자녀를 두기를 원하는 이

유에서 노후의 외로움 때문이라는 항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5]한 '2009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혼 남녀의 만혼화 현상은 2005년에 비해서 더 심화되고 있으며, 결혼의향 비율도 남성 약 86%에서 76%로, 여성 74%에서 7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의 출산의향 비율은 약 87%, 여성 85%이나, 반드시 갖고 싶다는 비율은 남성 24%, 여성 24%로 2005년에 비하여(남성 54.4%, 42.1%) 많이 감소하여 출산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혼여성의 수는 더 적어졌으며 출산 자녀 수와 기대자녀 수 역시 더 낮아졌다. 즉, 그 동안의 조사나 연구에서 보면 실제 출산한 자녀수가 비록 2명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2명 이상이었는데 이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5]에서는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마저 2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을 보였다.

낮은 출산율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별로 교육, 양육 및 생활비용 그리고 여성취업의 증가 등으로 비슷한 순위로 대답하였지만, 취업여성의 증가 때문에 낮은 출산율에 기여한다는 것에서 여성과 남성의 순위 차이가 현격하여,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취업으로 인한 육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성에 따른 출산율 저하의 원인 항목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았지만 성에 따른 취업여성증가 때문이라는 항목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황지영과 조윤정의 연구[4][6]에서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사회생활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였으며, 김수연의 연구[14]에서도 출산율이 급감하는 것에 대해 여성의 미혼율 증가와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 및 사회적 참여의 확대를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가고 여성의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이 결혼과 출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비용과 관련된 문항이 많지 않아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출산에 따른 비용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취업여성의 증가가 비용 항목들 뒤에 순위가 위치하였다[4][11][14]. 그러나 보다 많은 출산과 좋은 육아를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각종 비용들과 취업이란 요소는 상호관련성이 높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출산 및 보육·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였으며, 스웨덴 역시 단순한 재정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출산정책으로 인해 여성 고용문제와 여성복지, 가족복지까지 해결하는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을 통하여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5][16][17]. 이러한 유럽의 사례를 국내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은 도입을 하여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할 때 출산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보건의료계 대학생들의 성에 따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이 동일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결혼할 의사에도 특정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결혼할 의사가 다른 집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혼할 의사가 있는 남성의 집단의 경우, 여성 보다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결혼을 선호하는 것에 비해, 여성의 경우 경제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결혼할 의사가 없는 집단의

경우 남성의 경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여성의 경우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결혼할 의사가 있는 집단에서 여성의 경우, 경제적 유인이 지배적인 것을 볼 때 남성이 이를 충족시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결혼할 의사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것과 연결이 된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연구할 때 결혼과 출산율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기반의 확대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요한 보육서비스,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분위기 등의 사회적 환경 개선이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환경과 그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가치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회 문제이기에 출산과 관계가 있는 가족 가치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을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대학생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부족함으로 차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통계청(2010), 2009년 장래인구추계결과, 통계청.
2. 신호영(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65-97.
3. 장영식, 고경환, 이승욱, 이정우, 김나연, 진달래(2010),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2010,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pp.299-305.
4. 황지영(2007),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7-72.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3-22.
6. 조운정(2007),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8-72.
7. 김한곤, 김보경(2005),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 Vol.6(2);45-73.
8. 고경애(2006), 대학생들의 결혼관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조사 - 전북과학대생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29.
9. 최미정(2009), 대학생들의 결혼관·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6-72.
10. 최현민(2009). 대학생의 결혼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27.
11. 송유미, 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31(1);27-61.
12. 이상덕, 홍계옥(2010), 경주시 소재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의식 조사, 경주연구, Vol.19(2);135-161.
13. 김보경(2005)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43.
14. 김수연(2001),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3-53.
15.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8), 유럽의 출산장려 정책 사례연구-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pp.45-50.
16. 조형(1991),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가족, 가족학논집, Vol.3(1);161-180.
17. 장진경(2005), 이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

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Vol.43(11):165-170.

접수일자 2011년 5월 23일

심사일자 2011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16일